

〈한불사전〉과 〈한영사전〉의 로마자 표기법 연구*

한성우**

〈차 례〉

1. 서론
2. 로마자 표기법의 몇 가지 문제
3. 〈한불사전〉의 로마자 표기법
4. 〈한영사전〉의 로마자 표기법
5. 로마자 표기법의 전개
6.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80년에 간행된 〈한불사전〉과 1890년에 간행된 〈한영사전〉의 로마자 표기법과 이후의 로마자 표기법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사전은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최초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사전에서 이루어진 표기 체계와 방법이 이후의 로마자 표기법 전개과정에서 수용과 변용이 이루어진다. 한국어를 로마자 표기할 때 대상, 목적, 방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초의 답을 제시한 이 두 사전은 오늘날의 로마자 표기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불사전〉은 기본적으로 전자법에 입각해 한글 및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로마자 표기를 시도하였다. 특수문자 및 부가기호 사용을 최소화하되 한국어의 음운과 음운현상이 표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한영사전〉은 전음법을 기초로 외국인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의 로마자 표기법은 전음법을 기본으로 하되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특수문자나 부가기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로마자 표기법의 정착은 〈한불사전〉과 〈한영사전〉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두 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전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한불자전, 한영자전, 로마자 표기법, 전자법, 전음법, 대상, 목적, 방법

1. 서론

본고는 한국어가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로마자로 표기된 초기의 대역어 사전인 <한불자전>과 <한영자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분석하여 이후의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한불>은 서문(préface)에 한글자모의 로마자 표기법을 밝히고 모든 표제어를 로마자로 전사해 제시하고 있다. <한영>은 도입부(introduction)에 한글과 로마자 표기의 대응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두 사전의 로마자 표기 대응표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한불>의 표제어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다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른 시기에 편찬된 사전이므로 이후의 한국어 로마자 표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두 사전의 로마자 표기에 대한 분석은 한국어 로마자 표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소개되는 방식에는 문법서, 회화서, 사전 등이 있다. 한국어 또한 근대 이행기에 서양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문자체계와 그것의 전사, 그리고 단어의 발음 등은 기초적인 정보로서 빠지지 않는다. 이 두 사전보다 이른 시기에 간행된 대역어 사전인 <노한자전>에도 다양한 한국어와 그것의 대역어 표기가 제시가 되어 있으나 키릴 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두 사전보다 먼저 간행된 한국어 회화서 <Corean Primer>에는 다양한 상황의 대화를 한국어와 로마자로 표기해 놓았으나 표기체계 전체를 일람할 수 있는 대응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1) <한불자전>의 발간 당시 책명은 <한불조언 韓佛字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이고, <한영자전>의 발간 당시 책명은 <韓英字典Korean-English Dictionary>이다. 이하 <한불>과 <한영>으로 약칭한다.

에 비해 〈한불〉과 〈한영〉은 초기의 한국어 로마자 표기를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보여준다. 또한 사전의 규범적인 특성 때문에 이후의 실제 로마자 표기 및 표기 체계에 관한 논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도 두 사전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언어를 다른 문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 언어에 문자가 있다면 문자의 대응 표기가 일차적인 고려 요소가 된다. 그러나 언어 간에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문자의 대응만으로는 대상 언어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음운체계와 음운현상까지 고려하면 다른 언어를 다른 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한글과 로마자 모두 음소문자이지만 실제 표기가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두 사전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제기되는 것이어서 초기의 두 사전에 나타난 현실과 그 이면을 바라보는 것은 두 사전 이후의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본고의 2장에서는 먼저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추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한불〉과 〈한영〉의 로마자 표기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5장에서는 2장에서 제기된 쟁점이 〈한불〉과 〈한영〉 이후 어떻게 전개되고 해소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논의 과정은 〈한불〉과 〈한영〉의 로마자 표기 체계와 방법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거나 현대적 편견으로 단순하게 비판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로마자 표기법의 몇 가지 문제

다른 언어를 다른 문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유형적으로 같은 계통에 속하며 로마자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인구어와는 계통이 다른데다가 고유한

문자와 한자까지 쓰는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대상, 목적, 방법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은 소리와 문자 중 무엇을 로마자로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목적’은 외국인과 자국인 중 누구를 위해서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방법’은 특수문자와 부호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다.²⁾

1) 대상 - ‘소리’와 ‘글자’의 문제

특정 언어를 다른 문자로 표기할 때 그 대상은 당연히 언어이다. 그런데 그 언어의 소리를 적을 것인가 문자를 적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대상 언어에 문자가 따로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어의 경우 고유의 한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한자와 같은 표의문자는 문자가 있더라도 그 문자에는 소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는 고유의 표기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대상 언어에 별도의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글자를 목적 언어의 표기로 바꾸는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과 소리를 표기로 바꾸는 전음법(轉音法 transcription)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³⁾ 전자법은 대상 언어의 문자를 목적 언어의 문자로 전사하는 방법이다. 문자 대 문자의 대치이므로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문자의 한계와 체계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문자는 결국 소리를 적기 위한 수단인데 대상어나 목적어의 문자체계가 완벽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자를 매개로 하더라도 결국은 문자가 소리를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고려

2) 김선철(2012)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주이용자의 문제’, ‘발음이나, 시각적 구분 기호나: 기능의 문제’, ‘전자법이나, 전사법이나: 표기 기준의 문제’로 나누어 서술했는데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세 가지 문제와 대체로 유사하다.

3) ‘대상 언어’는 로마자로 표기하고자 하는 언어를 뜻하고 ‘목적 언어’는 로마자로 표기하여 읽고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를 가리킨다. 본고에서의 대상 언어는 한국어이고 목적 언어는 불어나 영어이다. ‘transcription’은 ‘전자법(轉寫法)’이란 용어로 번역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고에서는 ‘글자-소리의 대응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전음법’이란 용어를 쓴다.

없이 문자만을 대치하는 것은 대상 언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전음법은 대상 언어의 소리를 목적 언어의 문자로 전사하는 방법이다. 언어의 본질은 문자가 아닌 소리이기 때문에 대상 언어의 정확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음법이 보다 본질적이고 정확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음법을 택한다 할지라도 목적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의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목적어의 표기체계에 한계가 있다면 대상어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없다. 또한 전사과정에서의 소리의 인식과 표기의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외국어의 표기는 음성적 차이까지 고려한 정밀한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에 대한 인상적인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소리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표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2) 목적 - ‘외국인’와 ‘자국민’의 문제

어떤 언어를 다른 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기는 당연히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언어의 다른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표기하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자국민들도 그러한 표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표기법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외국인과 자국민들 사이에 갈리게 된다.

외국인을 위한 표기는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인식과 관습이 반영된 표기를 가리킨다. 대상언어의 소리와 문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외국인들의 관습에 따라 표기한다. 이러한 표기에서는 대상언어의 소리와 문자체계는 물론 대상언어 사용자의 직관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외국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자신들에게 익숙하거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적는다. 이러한 표기는 결과적으로 대상언어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일지라도 그들이 쓰는 언어

에 따라 인식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표기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자국인들을 위한 표기는 자국인들의 언어지식과 관습이 반영된 표기를 가리킨다. 자국어를 다른 언어의 다른 문자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어서 전적으로 자국인을 위한 표기는 없다. 그러나 자국인도 이러한 표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국인들의 언어지식이나 직관과 배치되는 표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리 및 문자체계가 언어마다 제각각이므로 모든 언어를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국어를 기준으로 체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표기가 규범으로 제정되고 관리될 경우에는 자국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도 하다.⁴⁾

3) 방법 - ‘기본’과 ‘특수’의 문제

문자는 기록하고자 하는 언어에 맞도록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글과 같이 ‘발명’된 문자는 초기에 한자음 표기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대의 한국어를 적기 위해 고안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변형을 거친 로마자의 경우도 개별 언어에 맞게 사용하는 문자의 수와 종류가 정해지고 부가기도 정해졌다. 따라서 특정 언어를 다른 문자로 표기할 때에는 문자의 불일치가 문제가 된다. 대상어와 목적어의 소리 및 문자체계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이러한 불일치를 무시하고 목적어의 기본적인 문자와 표기 체계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특수한 문자나 기호를 고안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인 문자로 처리하는 것은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여러 모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언어이지만 기존의 문자와 표기체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비록 새로운 문자나 기호를

4) 서반석(2000)에서는 로마자 표기법의 식민성과 탈식민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로마자 표기가 식민지 시대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고 이후의 표기 원칙과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도 식민성과 탈식민성에 대한 고려나 반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목적’의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인식 또는 감정과는 별도로 매우 실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용성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쓰지 않더라도 기존의 문자를 조합한 다중문자(diagraph)를 써서 정확한 대응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는 로마자의 변화 및 사용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이어서 목적어 사용자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자와 표기체계로 옮길 경우 기존의 독법이나 발음 습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이다.

특수한 문자나 기호를 고안해 다른 언어를 적는 것은 정확성을 추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문자나 기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문자나 기호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지, 그것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를 따로 알아야 한다. 더욱이 손으로 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계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때는 문제가 된다. 기존의 타자기로는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인쇄를 위해서는 활자나 폰트를 따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한불사전〉의 로마자 표기법

〈한불〉은 일러두기에서 한글과 한글의 로마자 전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제어에서도 한글과 로마자 표기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러두기에서는 한글의 구성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이용자들이 한글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같은 자모가 위치에 따라 어떤 소리로 발음되고 그것을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했는지까지 밝히고 있다. 〈한불〉이 한국어가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으로 로마자로 표기된 최초의 문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과 표기는 향후의 한국어 로마자 표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한불〉의 로마자 표기를 모음과 자음 순서로 파악해 보고 2장에서 제시한 문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한다.

1) 모음의 로마자 표기

〈한불〉의 서문에서는 한글의 모음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밝히고 말미에 한국어 모음을 불어의 알파벳 모음 순서에 따라 로마자 표기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1] 〈한불〉의 모음 로마자 표기

모음	발음	발음전사
ㅏ	A.	A
ㅑ	IA, 한 번에 소리를 냄. s 소리 앞에 오면 A로 발음 예) '샤'는 sa로 읽음.	YA
ㅓ	Ä, EU, A.	Ä
ㅕ	E. 짧은 O, O와 무음 E사이의 소리.	E
ㅗ	IO. 한 번에 소리를 냄 예) IA. '셔'는 so로 읽음.	YE
ㅛ	EU.	EU
ㅜ	I.	I
ㅠ	O.	O
ㅡ	IO. 한 번에 소리를 냄 예) IA '쇼'는 so.	YO
ㅝ	OU.	OU
ㅞ	IOU, 한 번에 소리를 냄 예) IA '슈'는 sou.	YOU

[표 1]은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따른 모음이 아니라 관습적인 모음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같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기만 남아 있는 ‘·’가 모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미 단모음화된 것으로 보는 ‘ㄱ’, ‘ㅈ’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불〉이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소리가 아닌 글자를 로마자화 하는 전자법을 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표 1]은 ‘발음’과 ‘발음전사’를 따로 제시함으로써 비교적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안내하고 있다. ‘ㅑ’, ‘ㅕ’, ‘ㅛ’, ‘ㅞ’가 모음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중모음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의 발음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을 붙

이고 있다. 불어를 비롯한 서양의 언어에 없는 ‘ㄱ’은 ‘O’ 및 무음 ‘∅’와의 유사성을 밝히고 있는데 비교적 정확한 발음 안내라고 판단된다.⁵⁾ 이중모음 ‘ㅑ, ㅋ, ㆁ, ㅓ’가 ‘ㅅ’과 결합될 경우에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사례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ㅅ’ 뒤에서 반모음이 탈락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음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까지도 밝히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한불〉의 서문에는 다른 이중모음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이중모음은 사전의 표제어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그 표기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2] 〈한불〉의 이중모음 로마자 표기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AI	YAI	EI	YEI	OA	OAI	OI	OUE	OUEI	OUI	EUI	AI	

[표 2] 또한〈한불〉의 로마자 표기가 한글 표기를 로마자로 옮기는 전자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ㅑ, ㅑ’는 이미 단모음으로 바뀌었고 ‘ㅑ, ㅑ’ 또한 그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병근 1970). 그러나 〈한불〉의 로마자 표기는 철저히 한글 모음의 제자원에 기초해 로마자로 전사하고 있다. ‘ㅑ, ㅑ’ 등도 음가와 ‘ㅑ, ㅋ’ 등의 로마자 표기를 감안하면 ‘WA, WAI’로 표기되어야 하나 ‘OA, OAI’로 표기된 것 또한 한글의 자형에 따른 로마자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의 소멸과 함께 ‘ㅑ’에 합류한 ‘ㅑ’가 여전히 이중모음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이유로 파악할 수 있다.

〈한불〉의 모음 로마자 표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ㅑ, ㅑ, ㅑ’ 등의 단모음과 이들 모음이 포함된 이중모음들이다. ‘ㅑ, ㅑ’는 불어나 영어를 비롯한 서양의 언어에 잘 나타나지 않는 모음이므로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로마자 표

5) ‘ㄱ’의 발음을 ‘O’와 관련지은 것은 이후의 로마자 표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 로마자 표기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매륜-라이샤위의 표기법에서는 ‘o’에 반달표를 위에 붙여 ‘ȯ’로 쓰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 ‘ㄱ’과 영어 ‘o’와의 관련성을 포착한 고안된 표기이다.

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로마자 ‘E’가 다양하게 읽힐 수 있으나 한국어의 ‘ㄱ’을 ‘E’로 표기해 놓으면 ‘ㄱ’과 유사하게 읽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ㅡ’는 모음 하나에 대응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EU’로 표기했는데 어떻게 표기하더라도 서양인들에게는 낯설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선택된 것으로 파악된다.⁶⁾ ‘ㄷ’은 ‘U’ 단독으로 표기할 경우 불어에서는 한국어의 ‘ㄱ’과 같이 읽히기 때문에 ‘OU’로 표기했다.⁷⁾

2) 자음의 로마자 표기

〈한불〉에서 모음은 서문에서 자형과 함께 제자원리까지 설명하고 있으나 자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빈약한 편이다. 서문의 본문 중간과 말미의 표에 불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글과 그것의 로마자 표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두었다.

[표 3] 〈한불〉의 자음 로마자 표기

모음	발음	발음전사
ㅎ	H, 항상 기음.	H
ㄱ	K, a 소리 앞에서 가끔 G.	K
지	K, 경음, 즉 보다 딱딱하고 좀 더 예리한 소리.	KK
ㅋ	K, 기음.	HK
ㅁ	M, 가끔 B.	M
ㄴ	N, 가끔 L.	N
ㅇ	NG, 파GN(비음의 기호), g는 발음되지 않음 - 기음화된 모음 앞에서 gn.	NG

6) 서문의 p. iv에서는 ‘ㅡ’가 ‘ㄷ’나 ‘.’와 동등하게 다루어진다는 언급이 있다. 이는 ‘브르다-부르다’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원순모음화 및 ‘업슨-업슨’에서 나타나는 표기상의 모음교체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7) 〈한불〉에서 ‘ㄱ’은 ‘E’로 표기되고 ‘ㄷ’은 ‘OU’로 표기되는데 이에 대한 오독으로 이후의 ‘ㄱ’에 대한 로마자 표기가 정해졌다는 가설도 있다. ‘ㄱ’과 ‘ㄷ’이 동시에 포함된 단어가 ‘서울’인데 〈한불〉에서는 이를 ‘SHEOUL’로 한 것이 이후 ‘ㄱ’의 로마자 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한불〉에서는 ‘SHE-OUL’로 음절을 나누어 표기한 것인데 이것을 ‘SHEO-UL’로 파악해 이후에 ‘ㄱ’을 ‘EO’로 표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정황상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ㅍ	P.	P
ㅑ	P 경음.	PP
ㅓ	P 기음.	HP
ㄹ	R, I, N.	R, L(*)
ㅅ	S. (그리고 종성에서 T), Z 소리 나는 예는 없음.	S, T(**)
ㅆ	S. 경음.	SS
ㅈ	T. ye, yo, you 앞에서 'TJ'로 발음.	T
ㅊ	T. 경음.	TT
ㅊ	T. 기음.	HT
ㅈ	TJ, DJ.	TJ
ㅊ	TJ. 경음	TTJ
ㅊ	TCH	TCH

(*) 초성에서 R, 종성에서 L, (**) 초성에서 S, 종성에서 T.

모음에 비해 자음은 수도 많고 체계도 복잡해 다른 언어의 문자로 표기할 때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한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자법을 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 경음, 격음의 삼지적 대립을 이루는데 불어어나 영어에서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이룬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된다. 〈한불〉에서는 한국어의 장애음 대립체계를 문자체계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했다. 즉 평음은 'C(C는 자음)'로, 경음은 'C'를 겹쳐 쓴 'CC'로, 격음은 'HC'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자음을 겹쳐 쓴 'CC'는 한글의 각자병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경음의 로마자 표기와 같은 방식이기도 하다.⁸⁾

[표 3]은 음운현상으로 인한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 문제는 물론 음성적인 변화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ㄴ, ㄹ'의 경우 두음법칙을 감안해 표기와 달리

8) 이러한 방식은 불어 사용자에게 낯선 방식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어의 자음체계를 중시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한글 표기를 바탕으로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수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ㅈ'은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려면 'HTJ'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불어에서 유사한 소리로 읽히는 자음의 연쇄인 'TCH'를 채용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한국어의 자음체계 및 문자체계를 따른 것은 아니다.

발음이 될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ㄷ’은 이중모음 앞에서 구개음화에 의해 ‘ㅈ’과 같은 소리로 발음됨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ㅈ’이라도 위치에 따라 음절말에서는 평파열음 ‘ㄷ’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이고 있다. 불어에서는 구별되는 ‘R’, ‘L’이 한국어에서는 ‘ㄹ’로만 표기되는 사실, 불어의 ‘Z’에 해당되는 ‘ㅈ’의 유성음이 없다는 사실 등도 밝히고 있다.

음성적인 특징까지 고려한 발음에 대한 설명 및 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성적인 변화인 유성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관심을 끌 만하다. 한국어의 장애음은 무성과 유성이 대립되지 않으나 장애음이 유성음 사이에 놓일 경우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음성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고기’는 음성적인 변화까지 감안하면 ‘KOGI’라 표기해야 하는데 <한불>에서는 ‘KOKI’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한불>이 전자법을 채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음운체계 및 문자체계를 따른 것이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로마자 표기법의 전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⁹⁾

3) <한불>의 로마자 표기의 특징

한국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로마자 표기라 할 수 있는 <한불>은 최초라는 사실 외에도 표기의 내적인 체계와 정교함으로 인해 향후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⁰⁾ <한불>의 로마자 표기 체계를 2장에서 제시한 대상, 목적, 방법 면에서 살펴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대상’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한불>은 한국어의 소리가 아닌 표기를 대상으로 로마자 표기를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한국어 표기를 위한 고유

9)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ㄱ’이 드물게 ‘G’로 발음될 수 있음이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10) 이지영(2009: 48)에서는 <한불>과 <한영>의 표제어 중 한자어 일치율이 51.01%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두 사전이 이전의 유해류를 참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편찬하는 과정에서 상호 참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제어뿐만 아니라 로마자 표기법도 역시 상호참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 한글이 있고 이 한글이 매우 체계적인 문자라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한불〉의 편찬자는 한글 자모, 특히 모음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제자 원리를 비롯한 여러 특성을 밝히고 있다. 한글이 서양인들에게는 낯선 글자이지만 그 체계를 알면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자체계의 특성 때문에 문자를 그대로 로마자화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불〉의 로마자 표기가 기본적으로는 전자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한국어의 음운현상과 음성적인 특징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표기로 전자법의 단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중모음 ‘ㅅ’ 뒤에 이중모음 ‘ㅈ, ㅋ, ㄲ, ㅍ’가 올 경우 반모음이 탈락된다는 설명이나 자음에서의 두음법칙, 구개음화, 평과열음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의 발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전자법에 따른 로마자 표기만으로는 이러한 현상과 변화가 반영되지 않지만 서문에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표기와 발음상의 괴리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목적’ 면에서는 극히 초기의 대역사전이므로 철저하게 불어 사용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인이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아니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로마자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로마자 표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관습화나 규범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시기는 훨씬 후에야 도래하게 된다. 〈한불〉의 편찬자 또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에게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국어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한국어 사용자들의 언어지식이나 직관 등이 잠재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의 자형에 대한 관심, 발음에 대한 세심한 설명 등은 한국어 자체는 물론 사용자들의 직관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자음을 표기할 때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한국인이 ‘인지하는 소리’를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장애음 계열이 환경에 따라 유성음으로 발음되고 〈한불〉의 편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자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법을 택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한글 자체가 한국어의 음성이 아닌 음소를 적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과는 같다.

‘방법’ 면에서는 ‘·’를 제외하고는 기본문자만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 한국어의 모든 자모 혹은 소리를 기본 로마자 하나나 로마자의 연쇄로 표기할 뿐 다른 부가적인 기호를 전혀 쓰지 않고 있다. 불어의 경우 부가기호가 포함된 알파벳을 쓰는 것을 감안하면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확성’과 ‘편리성’ 사이의 고민에서 편리성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어의 소리에 대한 일러두기의 설명을 보면 <한불>의 편찬자들은 당대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이해가 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이해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할 때 다양한 부가기호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표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불>의 편찬자들은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문자의 연쇄 정도로 한국어를 표기하고 있다.¹²⁾

4. <한영사전>의 로마자 표기법

<한영>은 <한불>에 비해 로마자 표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한불>은 한글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할애하고 개별 자모에 대한 소개나 발음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소상하게 제공한다. 이에 비해 <한영>은 당대에

11) 당시의 ‘·’는 표기만 남아 있을 뿐 ‘ㅏ’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를 한다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모음이었다. 그러나 <한불>은 전자법을 기본으로 로마자 표기를 정했기 때문에 ‘ㅏ’를 표기하는 ‘A’에 부가기호를 써서 ‘Ǻ’로 쓰고 있다. 문자상으로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표기도 마련했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발음에 대한 소개에서도 ‘EU’나 ‘A’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의 역사적 변화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12) 다른 언어를 다른 문자로 표기할 때 부가기호를 쓰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점에서 <한불>의 이러한 선택이 주목을 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ㅓ’나 ‘ㅡ’를 이후의 매륀-라이샤워 표기법에서는 각각 ‘o’와 ‘i’에 부가기호를 사용해 ‘ö’와 ‘ü’로 쓰고 있는데 이 표기를 접한 이들에게 이 소리가 ‘o’ 및 ‘i’와 유사하되 조금 다른 소리라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용되던 문자에 대한 소개 중간에 한글과 로마자 대응표만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는 한글 표제어만 제시되어 있을 뿐 로마자 표기가 없어 로마자 표기의 전모를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한글과 로마자 대응표 또한 한글교육용으로 만들어진 ‘반절표’에 로마자 표기만 붙여놓은 것이다. 〈한영〉이 〈한불〉에 비해 로마자 표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한불〉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되었고 이후에 관습화된 한국어 로마자 표기와 유사하므로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한불〉과 마찬가지로 로마자 표기를 모음과 자음 순서로 파악해 보고 2장에서 제시한 문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한다.

1) 모음의 로마자 표기

〈한영〉의 도입부에서는 한글 반절표에 바탕을 둔 로마자 표기 대응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1열에서 모음의 로마자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영〉의 모음 로마자 표기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으
a	ya	yō, ü	yō, yū	o	yo	yu	yu	eu	i	a

[표 4]가 반절표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로마자 표기는 글자 대신 소리를 기준으로 한 전음법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인 ‘아’와 ‘·’가 모두 ‘a’로 표기된 것이다. 당시의 ‘·’가 문자로는 남아 있을지라도 소리는 이미 ‘ㅏ’로 변했으므로 문자와 상관없이 같은 로마자로 전사하고 있다. ‘ㄱ’은 ‘yu’로 표기했으나 자음과 결합된 ‘누, 무’ 등이 ‘nu, mu’로 표기된 것을 감안하면 ‘u’의 오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슈, 쥬, 추’ 등이 ‘su, chu, chü’로 표기된 것을 보면 반모음이 탈락된 이 때의 표기가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반모음이 포함된 ‘슈, 쥬, 추’의 전사에서 반모음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영〉이 한국어의 표기가 아닌 발음을 기준

으로 한 전음법을 채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표 4]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i’와 ‘—’이다. 이 두 모음은 서인구어에 없는 모음으로서 <한불>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들이다. ‘i’는 ‘yö, ü’로 대응시켜 놓았는데 이러한 표기는 한국어 ‘i’의 로마자 표기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기는 하나 어떤 소리로 받아들여거나 발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ö, ü’가 쓰이는 독일어의 발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음은 전설원순모음이기 때문에 본래의 ‘i’ 소리와는 거리가 멀다. ‘—’는 <한불>과 마찬가지로 ‘eu’에 대응시켰다. ‘—’ 역시 인구어에는 없는 모음이어서 표기가 마땅치 않은데 <한불>과 <한영>에서 일치된 표기가 나타나므로 이후에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한영>의 도입부나 표기 대응표에 이중모음이 빠져 있고 본문의 표제어에도 로마자 표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 반절표에 포함된 상향이중모음 이외의 이중모음의 로마자 표기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도입부의 대응표에 ‘과, 취, 타, 화, 휘’ 등의 w계 상향이중모음 일부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취, 취’ 등의 로마자 표기되어 있으나 체계적이지도 않고 부정확한 표기로 보이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중모음의 로마자 표기 전반을 파악하기는 어렵다.¹³⁾

2) 자음의 로마자 표기

<한영>에서 한국어 자음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과 마찬가지로 도입부의 대응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음 또한 반절표의 일반적인 배열에 따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제시되어 있는데 표의 다른 위치에 경음을 나타내는 ‘ㅅ, ㅆ, ㅈ, ㅊ, ㅌ’이 제시되어 있고 모음과 결합된 자음의 표기도 제시되어 있어 자음자 전체의 전사 체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모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취’와 ‘취’가 각각 ‘ch’wö, ch’wü’와 ‘ch’wö, ch’wü’로 표기되어 있는데 ‘ü’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하여 음운사적으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과, 좌, 타, 화, 휘’ 등이 왜 대응표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표 5] 〈한영〉의 자음 로마자 표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k, g	n, l	t, d	l, n	m	p, b	s, t	ng				
ㄱ	ㄷ	ㅂ	ㅅ	ㅈ	ㅎ	ㅍ	ㅌ	ㅋ	ㅊ	ㅌ	ㅈ
g, tg	d, td	b, tb	s, ts	j, tj	h	p'	t'	k'	ch'	ch, j	

[표 5]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음 계열의 대립체계이다. 한국어의 장애음 계열은 평음, 경음, 격음의 삼지적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표 4]의 로마자 표기는 평음과 유기음의 대립을 설정하고 평음은 다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ㅋ, ㅌ, ㅍ’ 등은 ‘k, t, p’에 부가기호 ‘ ’를 써서 ‘k', t', p'로 표기하고 ‘ㄱ, ㄷ, ㅂ’ 등은 ‘k-g, t-d, p-b’와 같이 무성음과 유성음 모두에 대응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대응표의 주석에서 ‘한국어의 k, t, p, ch는 단어 내부나 음절 첫머리에서 g, d, b, j’로 바뀐다는 사실을 밝혀 놓고 있다.

경음 계열의 표기는 많은 고민 끝에 일정한 체계로 적은 것으로 보이나 표기와 그에 따른 발음 모두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당시의 경음은 ‘ㄱ, ㄷ, ㅂ’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한영〉의 표기에도 이 병서 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경음임을 나타내는 ‘ㅅ’을 ‘t’로 표기했는데 이는 ‘ㅅ’이 음절초에서는 ‘s’이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t’로 나타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음부호에 해당되는 ‘t’ 뒤의 장애음을 무표적인 무성음이 아닌 유성음을 쓰고 있다. 그 결과 ‘ㄱ, ㄷ, ㅂ, ㅅ, ㅈ’이 각각 ‘tg, td, tb, ts, tj’로 표기되었다.

한국어의 경음 계열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고자 한 의지는 파악이 되나 이러한 표기가 영어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나 한국어 경음의 정확한 발음을 유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불〉에서는 한글의 각자병서와 유사하게 평음 전사자 두 자를 겹쳐서 ‘kk, tt, pp’ 등으로 표기했는데 시각적으로나 발음상으로 한국어 경음을 이해하고 발음하는 데 더 나아 보인다. 그런데 〈한영〉에서는 한글의 합용병서와 유사하게 ‘t’와 유성자음을 겹쳐

쓰고 있다.¹⁴⁾ 표기나 발음상으로 ‘tg, td, tb’와 같은 연쇄를 경험하지 못한 영어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표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s’이나 ‘r’의 표기에서는 당대의 현실발음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파악된다. ‘s’은 음절말에서 평폐쇄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감안해 ‘s’을 ‘s, t’로 표기하고 있다. ‘r’은 위치에 따라 ‘r, l’로 표기될 수 있으나 <한영>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l, n’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두음법칙으로 인한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장애음 계열의 음성적 변화인 유성음화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r’의 변이도 표기에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

3) <한영>의 로마자 표기의 특징

<한불>과 마찬가지로 <한영>의 로마자 표기도 향후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후의 로마자 표기가 영어 사용자를 전제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한영>의 로마자 표기는 매우 중요하다. <한영>의 로마자 표기 또한 2장에서 제시한 대상, 목적, 방법 면에서 살펴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상’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한영>은 한국어의 소리에 초점을 맞춰 로마자 표기를 하고 있다. <한불>은 한글 자모의 제자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한영>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모음과 자음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불>만큼 체계적이지도 않고 자형에 따른 표기와 그것의 실제 발음 등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한글 표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에 따라 로마자 표기를 제시하고 있다.

<한영>이 전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14) <한불>이 전자법을 주로 따르고 <한영>이 전음법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한국어의 경음계열 표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한영>에서 ‘s’에 해당하는 ‘t’ 뒤에 무성자음 대신 유성자음을 쓴 것은 경음과 유성음의 청음상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성자음을 음소로 인식하지 않는 한국어 사용자들의 귀에 영어의 유성자음이 경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것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경우에 이런 표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ㅏ’와 함께 표기한 것과 장애음 계열의 표기에 유성자음을 쓰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한불〉에서는 ‘·’를 ‘ㅏ’와 다르게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는 문자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한영〉에서는 로마자 표기에서는 따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에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도 없고 한글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특별한 환경에서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포착해 유성자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ㅓ’와 ‘ㄹ’의 표기에서는 전음법과 전자법의 양면을 모두 보여준다. ‘ㅓ’이 환경에 따라 ‘t’로 발음되는 것은 표기가 아닌 소리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음법을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경음표기를 위해 ‘t’를 ‘g, d, b’ 등의 앞에 쓴 것은 한글 표기의 각자 병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로마자 표기에서 ‘t’가 경음부호로 쓰일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당시의 경음을 ‘ㅓ’계 합용병서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ㅓ’의 변이음 표기인 ‘t’를 쓴 것으로 보인다. ‘ㄹ’의 경우 두음법칙이 작용할 경우 ‘n’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는 전음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ㄹ’이 위치에 따라 ‘l’과 ‘r’로 발음될 수 있는데 ‘r’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전음법을 완전하게 지킨 것은 아니다.

‘목적’ 면에서 〈한영〉은 〈한불〉보다 더 철저하게 영어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불〉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된 만큼 〈한영〉이 당대의 한국어 사용자를 배려하거나 로마자 표기에 대해 당대의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상황은 아니다. 나아가 〈한불〉은 한국어의 음소체계와 문자체계를 어느 정도 감안해 로마자 표기를 했으나 〈한영〉은 이러한 고려가 거의 없이 했다는 점에서 역시 한국어 사용자보다는 영어 사용자나 외국인들을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한글이 한국어의 음소체계를 충실히 반영한 문자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전음법을 택하는 순간 한국어 자체 및 한국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덜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방법’의 면에서 살펴보면 〈한영〉은 〈한불〉보다 부가기호나 특수문자를 조금 더 사용하고 있다. 모음에서는 ‘ㅓ’를 표기할 때 ‘ö, ü’를 사용했으며 자음에서는 유기음을 나타내기 위해 평음자에 어갯점(˘)을 사용해 ‘c’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중문자로 표기하고 있어 부가기호나 특수문자를 특별히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i’를 로마자 하나인 ‘E’에 대응시키고 유기음은 부호 대신 ‘H’를 써서 표기한 <한불>에 비해서 더 많이 사용한 편이다. 부가기호나 특수문자를 쓰게 되면 쓰고 읽는 데 불편할 수 있으나 정확한 발음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한영>에서 쓴 ‘ö, ü’나 유기음 부호는 정확한 발음을 유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 소리나 표기가 없는 것을 로마자의 연쇄로 나타내는 것은 <한영>이 <한불>과 비슷하지만 경음 표기는 방법도 납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을 유도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경음부호처럼 사용된 ‘i’가 영어사용자들에게 낯설 뿐 아니라 이와 함께 사용된 것이 평장애음이 아닌 유성음이어서 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영>에는 표제어의 로마자 표기도 없고 전체적으로도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공을 들인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영>이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한불>보다 이후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당시에는 불어와 영어가 모두 국제어로서 기능을 했지만 이후 영어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도 영어를 전제로 개발되고 변화하게 된다.

5. 로마자 표기법의 전개

<한불>과 <한영>의 출간 이후에 로마자 표기법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39년에 발표된 매쿤-라이샤워 표기법(이하 <MR>), 1959년에 제정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하 <한로>), 그리고 2000년에 공포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하 <국로>)이다. 이상의 표기법 전개과정은 영어를 전제로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대상, 목적, 방법 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세 표기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2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본다.

1) 모음 표기법의 전개

모음의 로마자 표기에서는 영어에 없는 모음의 표기가 문제가 된다. 먼저 주요 표기법의 모음 표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매륀-라이샤워 표기법의 모음 로마자 표기(1939년)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ya	õ	yõ	o	yo	u	yu	ü	i
ㅙ	ㅛ	ㅜ	ㅠ	ㅑ	ㅓ	ㅕ	ㅠ	ㅑ	ㅓ
ae	yae	e	ye	wa	wae	oe	wõ	we	wi

[표 7]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의 모음 로마자 표기(1959년)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ya	eo	yeo	o	yo	u	yu	eu	i
ㅙ	ㅛ	ㅜ	ㅠ	ㅑ	ㅓ	ㅕ	ㅠ	ㅑ	ㅓ
ae	e	ye	yae	wa	wae	oe	weo	we	wi

[표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모음 로마자 표기(2014년)

ㅏ	ㅓ	ㅗ	ㅜ	ㅡ	ㅣ	ㅙ	ㅛ	ㅜ	ㅠ
a	eo	o	u	eu	i	ae	e	oe	wi
ㅑ	ㅕ	ㅛ	ㅠ	ㅙ	ㅓ	ㅑ	ㅓ	ㅕ	ㅓ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모음의 표기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중심이 되어 만든 〈MR〉이 다소 이질적이고 국내의 인사들이 규범적으로 만든 〈한로〉와 〈국로〉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단모음 중 음영(■)으로 처리된 모음들이 로마자 표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MR〉만 이질적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MR〉을 보면 ‘ㅑ’는 〈한영〉과 유사하되 ‘õ, ü’ 대신 ‘o’에 반달표(˘)를

써서 ‘ㅇ’로 표기한 것이 조금 다르다. 이에 비해 <한로>와 <국로>에서는 <한불>의 표기법에서 유래한 ‘eo’를 쓰고 있다.¹⁵⁾ ‘ㅡ’ 또한 <MR>에서는 반달표를 써서 ‘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불> 이후 일반화된 표기 ‘eu’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어에 없는 모음을 표기할 때 체계 내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반달표를 쓴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ㄱ, ㅋ, ㆁ, ㆁ’ 등은 자형 때문에 <한불>에서는 이중모음인 듯 표기를 했으나 <MR> 이후에는 표기가 아닌 실제의 음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범상 <국로>의 ‘ㄱ, ㆁ’는 단모음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수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MR>과 <한로>의 관행을 따라 결과적으로는 세 표기가 완전히 동일해졌다. 이중모음 ‘ㄱ’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국로>는 <한불>이나 <한로>를 반영하지 않고 <MR>를 변형해 표기했다.

2) 자음 표기법의 전개

자음의 로마자 표기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자음 대립체계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된다. 먼저 주요 표기법의 자음 표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의 자음 로마자 표기(1939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ㄷ	ㅂ	ㅅ	ㅈ
k	n	t	l	m	p	s	ng	ch	ch'	k'	t'	p'	h	kk	tt	pp	ss	tch
g	l	d	r		b	sh		j	t	k	t	p		k	tt	pp	t	tch
gn	n	n	n		b	t		n	n	ng	n	m		ng			n	

15)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불>에서는 ‘ㄱ’을 ‘E’로 표기했고 ‘ㄷ’은 ‘OU’로 표기했는데 ‘서울’의 표기 ‘SHEOUL’의 음절 분석을 잘못해 ‘ㄱ’을 ‘EO’로 표기한 것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정 시기에는 이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한로>과 같이 이미 관습화가 되어 있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로마자 표기 ‘EO’가 한국어의 ‘ㄱ’와 발음이 유사하다거나 그렇게 발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ㄱ’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중문자로 해야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하다.

[표 10]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의 자음 로마자 표기(1959년)

ㅍ	ㅂ	ㅃ	ㅌ	ㄷ	ㄸ	ㅋ	ㄱ	ㄲ	ㅅ	ㅆ	ㅎ	ㅁ	ㄴ	ㅇ	ㄹ
p	b	bb	t	d	dd	k	g	gg	s	ss	h	m	n	ng	r, l

[표 1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자음 로마자 표기(2014년)

ㄱ	ㄲ	ㅋ	ㄷ	ㄸ	ㅌ	ㅃ	ㅍ	ㅅ	ㅆ	ㅈ	ㅊ	ㅍ	ㅆ	ㅎ	ㄴ	ㅁ	ㅇ	ㄹ
g k	kk	k	d t	tt	t	b 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 l

자음에 대한 세 표기법을 살펴보면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이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문제는 한국어에서 삼지적 상관을 이루고 있는 장애음 계열의 표기이다. 또한 장애음들이 음절이나 단어 내부의 위치에 따라 변이음으로 실현되는데 이를 표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표기를 비교하기 위해 파열음 계열만 모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파열음 계열의 로마자 표기 비교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매칸-라이샤워 표기법	p b	t d	k g	p'	t'	k'	pp	tt	kk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b	d	g	p	t	k	bb	dd	gg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b p	d t	g k	p	t	k	pp	tt	kk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을 이루는 한국어의 파열음을 유성과 무성의 대립을 이루는 영어에 맞춰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 또한 한국어의 평장애음이 위치에 따라 유성 변이음으로 실현되기도 하니 더 문제가 된다. 〈한로〉에서는 전자법과 유사하게 평음과 격음에 각각 유성자음자와 무성자음자를 대응시키고, 경음에 유성자음자 두 개를 나란히 썼다. 이와 달리 나머지 표기법에서는 환경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소리를 표

기에도 반영했다.

평음 표기에서는 <MR>과 <국로>가 유사해 보이나 전자에서는 ‘p, t, k’를 평음의 기본자로 하고 유성음화를 반영하기 위해 ‘b, d, g’를 썼다. 이와 달리 후자에서는 ‘b, d, g’를 평음의 기본자로 하고 음절말의 평폐쇄음을 나타내기 위해 ‘p, t, k’를 썼다는 점에서 다르다. 격음 표기에서는 <MR>만 부가기호를 쓴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경음 표기는 한글의 각자병서처럼 로마자를 겹쳐 쓰는 방식으로 표기했는데 어떤 로마자를 겹쳐 쓸 것인가에서만 차이가 난다.

3) 로마자 표기법 전개와 <한불> 및 <한영>

<한불>과 <한영>에 적용되었던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문제는 이후의 전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한불>과 <한영>의 표기법이 이후의 표기법에 그대로 수용되기도 하고 변용되기도 한다. 로마자 표기법의 대상, 목적, 방법 면에서 이후 전개된 로마자 표기법을 살펴보면 그러한 흐름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대상 면에서는 이후의 모든 로마자 표기법이 문자가 아닌 소리를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다. 한글이 체계적인 문자이고 한국어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문자만 옮겨 적는 것으로는 한국어를 정확하게 로마자로 표기하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어는 음운현상이 매우 다양해서 문자 표기와 실제의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MR>에서는 발음의 변화를 매우 다양하게 반영했다. 이는 ‘ㄱ’에 대응되는 표기로 ‘k, g, gn’을 설정한 것이나 ‘ㅅ’에 대응되는 표기로 ‘s, sh, t’를 설정한 것 등에서 확인이 된다. 비음동화와 평파열음화와 같은 변화는 물론 유성음화나 구개음화 같은 음성적 현상까지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로마자 표기법이 전적으로 전음법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로>에서는 한글과 로마자 표기의 일대일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ㄱ’에 ‘g’를 대응시키고 ‘ㄱ’에 ‘gg’를 대응시키는 등 경음 표기에서 이

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로마자 ‘g’가 나타내는 소리를 감안하면 이러한 표기는 있을 수 없고 수용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글에 로마자를 대응시키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표기이기도 하다.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두 표기법에서도 로마자를 겹쳐 씌으로써 경음을 표기하고 있다.

이는 한글의 자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불〉에서 시도된 방식이기도 하다. 〈한불〉이 편찬되던 시기에는 경음이 ‘시’계 합용병서로 ‘시’과 같이 표기되었는데 〈한불〉에서는 ‘KK’로 표기했다. 〈한불〉보다 전음법을 더 추구한 〈한영〉에서는 경음만은 유독 표기를 따라 ‘tg’로 표기함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불〉의 방식대로 같은 로마자 둘을 겹쳐 적는 방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자음의 대립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로마자로는 한국어의 경음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는 없으나 같은 로마자를 겹쳐 씌으로써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경음을 표기하게 되었다.¹⁶⁾

목적 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영어 사용자를 비롯한 외국인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어 및 한국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한불〉과 〈한영〉은 극히 초기의 사전이기도 하고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 자체의 특성과 한국인의 직관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MR〉을 고안할 때 한국인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이후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인들이 주도하게 된다.

〈MR〉은 외국인이 주도한 만큼 외국어 사용자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표기법이 표기가 아닌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인이 인식하는 소리가 아닌 외국인이 듣는 소리를 적었다는 것에서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어의 음운현상에 따른 소리의 변화는 물론 변이음까지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비교적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16) 이는 경음을 ‘시’계 합용병서가 아닌 평음의 각자병서로 표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음성적으로는 평음이 겹친다고 해서 경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적으로는 그러한 효과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배후에 영향을 미쳐 경음의 로마자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작 한국인들은 로마자 표기를 보고 한국어로 환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표기가 어떤 언어를 다른 문자로 표기하는 근본적인 목적에는 부합하는 것이지만 로마자 표기법은 그 언어 사용자도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이후의 두 표기법은 한국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외국어 사용자를 목적으로 하되 한국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두 표기법 모두 소리를 적는 것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듣는 소리가 아닌 한국인이 인식하는 소리를 적고자 한 데서 〈MR〉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또한 자음 표기에서 잘 드러나는데 제한된 숫자의 로마자로 영어와는 대립체계가 다른 한국어 자음을 완벽하게 표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인이 인식하는 자음체계를 한국인의 귀에 들리는 대로의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그 결과 유성 변이음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본래 유성음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되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방식이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로마자 표기법의 흐름은 〈한불〉 및 〈한영〉과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초기의 사전이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의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공유하는 것이어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MR〉 이후의 흐름은 상당 부분 〈한불〉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불〉이 비록 이른 시기에 편찬되었지만 한국어 및 한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방법 면에서는 〈MR〉만 이질적이고 다른 두 표기법은 같다. 〈MR〉에서는 영어에 없는 모음의 표기를 위해 반달표를 쓰고 한국어의 격음을 표기하기 위해 어긋점을 쓰고 있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는 이러한 부호 없이 로마자를 겹쳐 쓰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특수문자나 부호의 사용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MR〉의 원칙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한국인의 편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어 표기를 위해서 특수한 문자나 부가적인 부

호를 쓰는 것이 이른 시기에는 흔했지만 읽고 쓰는 것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 특수한 문자나 부호가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가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타자나 전산 입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표기가 방해가 되기도 한다. 시기의 문제 때문에 방법 면에서 〈한불〉이나 〈한영〉은 〈MR〉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

6. 결론

이상으로 〈한불〉과 〈한영〉의 로마자 표기법과 이후의 로마자 표기법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한불〉과 〈한영〉은 최초의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전에서 이루어진 표기 체계와 방법이 이후의 로마자 표기법 전개과정에서 수용과 변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사전의 편찬 당시부터 제기된 로마자 표기의 대상, 목적, 방법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초의 답을 제시한 이 두 사전은 오늘날의 로마자 표기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불〉은 기본적으로 전자법에 입각해 한글 및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로마자 표기를 시도하였다. 특수문자 및 부가기호 사용을 최소화하되 한국어의 음운과 음운현상이 표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한영〉은 전음법을 기초로 외국인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불〉과 〈한영〉에서 제시된 표기법은 〈MR〉, 〈한로〉, 〈국로〉에도 수용되거나 변용이 된다. 전체적으로는 전음법에 입각해 로마자 표기를 하되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특수문자나 부가기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로마자 표기법의 정착은 〈한불〉과 〈한영〉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두 사전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GALE J. S., 『韓英字典(A Korean-English Dictionary)』, 1897.
- Ridel F., 1880, 『한불조언(韓佛字典, Dictionnaire Coreen-Francais)』.
- 이은령 외 역,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소명출판, 2014.
- 고영근 편, 『로마자 표기법 집성』, 『역대 한국 문법 대계』 3부 1책, 탑출판사, 1986.
- 고영근, 『19세기 중엽의 불란서 선교사(宣教師)들의 한국어연구(韓國語研究)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7 2·73권, 1976, 290~291쪽.
- 김선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한국어학』 56, 2012, 1~27쪽.
- 김정우,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연구』, 『한국번역학회』 9(2), 2008, 67~93쪽.
- 서민정, 『개화기 우리말 기술에 반영된 서구 언어적 시각 - '한불자언'과 '한영자언'을 중심으로 -』, 『한글』 제283호, 2009, 155~185쪽.
- 서반석, 『로마자 표기법의 식민성과 탈식민성』, 『창작과 비평』 109, 창작과 비평사, 2000, 300~310쪽.
- 여찬영, 『<한영자언>에 관한 몇 가지 분석』, 『배달말』 14-1, 1989, 139~167쪽.
- 이병근,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 9, 1970, 375~390쪽.
- 이은령, 『근대 프랑스 사전 만들기와 <한불조언>다시 보기』, 『프랑스학연구』 48, 2009, 281~313쪽.
- _____, 『19세기 이종어 사전 한불사전(1880)과 한영사전(1911)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72, 2010, 63~88쪽.
- _____, 『파리의방전교회의 한불사전(1880)과 불한사전(1869) 비교 연구』, 『코기토』 80, 2016, 67~106쪽.
- 이지영, 『사전 편찬사의 관점에서 본 韓佛字典 의 특징 - 근대국어의 유해류 및 19세기의 『國漢會語』, 『韓英字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48, 2009, 73~92쪽.

A Study on Romanization System of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and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Han, Seong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manization system and its development in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1880> and <Korean-English Dictionary 1890>. Also, it illustrates how the problems of Romanization arose upon the publication of the two dictionaries. These two dictionaries were the first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ttempt to romanize Korean to Roman alphabet. The romanization system and method made in this dictionary are accepted and transform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romanization system. The object, purpose, and method are raised as important questions when romanizing Korean, and these two dictionaries, which provided the first answer to these problems, have a great influence on today's romanization system. Based on transliteration method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attempted to romanize according to the phonological system and phonological rule of Korean. Efforts were made to minimize the use of special characters and additional symbols, but to reflect Korean phonology and phonological phenomena. <Korean-English Dictionary> focused on solely reflecting the sounds heard in the ears of foreigners on the basis of the transcription method. Later, romanization systems were based on the transcription method, but adopted a method that could be understood and accepted by Koreans as well

* Inha University

as foreigners. In addition, it was settled in the direction of eliminating special characters or additional symbols. The settlement of these Roman notations is large in value because of the great contribution from <Korean-English Dictionary> and <Korean-English Dictionary>.

Key words :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and <Korean-English Dictionary>. Romanization, Transcription, Transliteration, Object, Purpose, Method.